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 2022년도 제30호

### **스포츠인권**

**경기도, 전국 지자체 첫 ‘스포츠인권센터’ 설치**

최찬흥 연합뉴스기자

### **한겨레 단독보도**

**한체대 역도부코치의 ‘하키채 구타’...뇌진탕 중상자까지**

이준희 한겨레 기자

###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

**‘최속현 사건’ 그후 2년..울먹인 유족 “체육계 병폐와 여전히 싸워요”**

박대헌, 정형근, 배정호 스포티비 기자

### **여자근대5종 국가대표팀**

**근대 5종, 여자부 세대교체 희망 밝혔다..세계선수권 단체전 銀**

송지훈 중앙일보 기자

###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

**학교 운동선수들, 혹서기 몰린 전국대회에 ‘방학은 그림의 떡’**

김영웅 경기일보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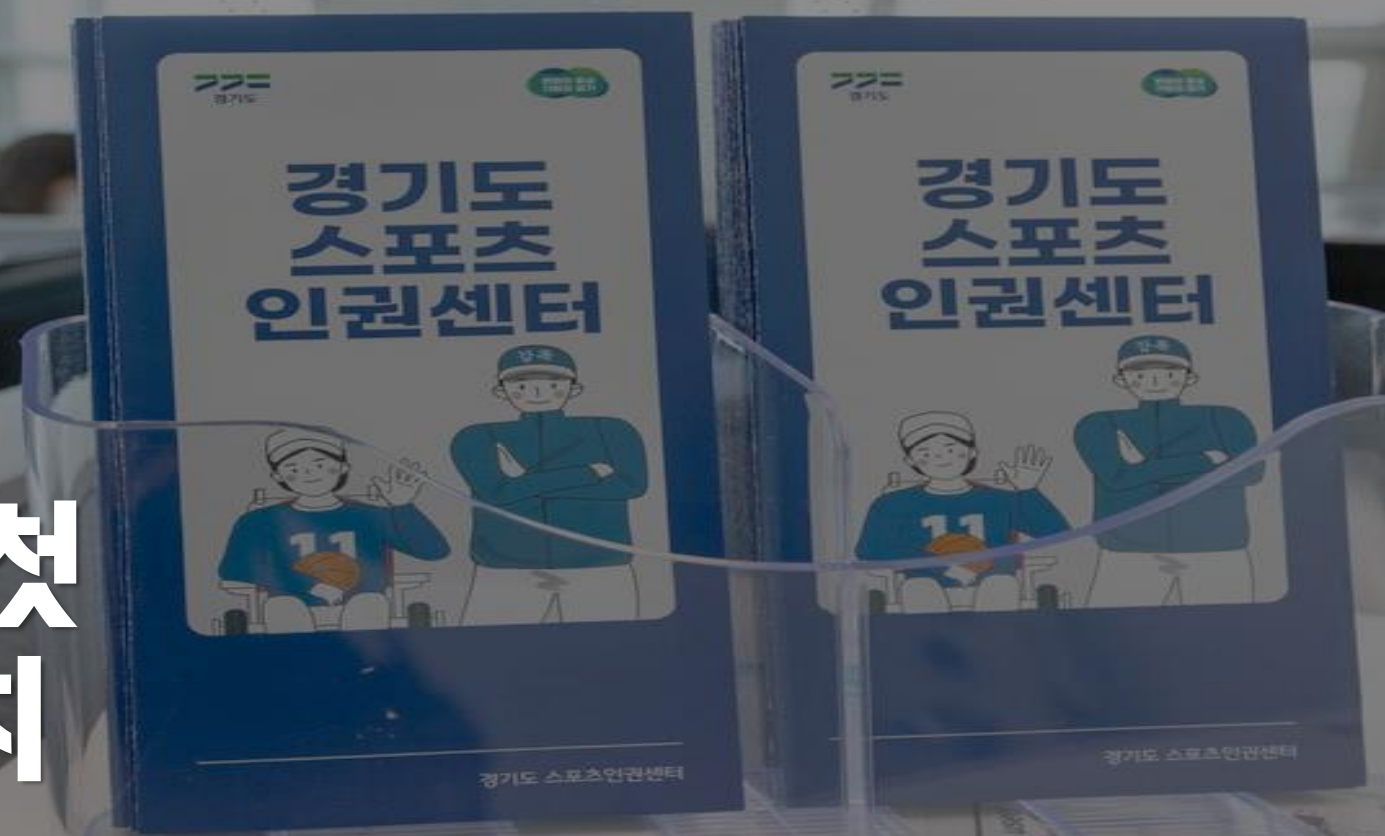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 경기도, 전국 지자체 첫 '스포츠인권센터' 설치



경기도는 28일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스포츠인권센터'를 설치했다.

도청사 20층에 개소한 스포츠인권센터에는 심리 상담, 스포츠 인권과 관련한 전문가 3명이 배치됐다.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전선영(44) 씨의 경우 농구 국가대표 출신이기도 하다.

센터는 스포츠 인권침해와 비리를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신고 내용은 도내 선수·지도자 등 경기도 관련 내용이어야 하지만 신고·상담자는 도민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전문가들이 상담, 2차 피해 조사, 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을 수행하며, 신고자가 희망하면 '찾아가는 상담'도 진행한다.

센터는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도청 법무담당관·정신건강과 등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를 위한 법률 및 심리상담 등을 일괄 지원할 방침이다.

스포츠 인권 전문 강사가 현장에 파견되는 '찾아가는 스포츠 인권교육'도 수행한다.

센터는 또 공정한 계약을 통한 체육종사자 권익 향상을 위해 연말까지 생활체육지도자를 위한 경기도형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선수과 지도자, 비장애인과 장애인 선수별로 스포츠 인권 관련 세부 실태조사도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김현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올해 6월 스포츠기본법 시행으로 스포츠 인권도 체육계 종사자나 선수뿐만 아니라 도민이 함께 향유할 기본 권리가 됐다"면서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가 이런 시대적 흐름을 선도하면서 스포츠 인권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체대 역도부 코치의 '하키채 구타'... 뇌진탕 중상자까지

**한국체육대학교 생활관 폭행 사건**이 당초 학교 쪽 설명과 달리 전치 12주 환자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폭행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다, 생활관 사감실에 하키채를 비치하는 등 일상적으로 폭력이 발생했을 정황도 포착됐다. 스포츠 폭력 사각지대로 남은 한국체육대학교(이하 한체대) 생활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월25일 한체대 역도부 조교이자 남자 생활관 사감인 최아무개 코치는 밤 10시께 생활관 2층 복도에 역도부 학생 19명을 집합시킨 뒤 1시간 넘게 얼차려를 주는 등 가혹 행위를 했다. 최 코치는 욕설과 함께 하키채로 학생 6명의 머리, 목 뒤, 팔을 내려찍는 등 폭행도 가했다. 이 폭행으로 한 학생은 뇌진탕을 당하고 신체 일부 마비가 오는 등 전치 12주 부상을 입었다. 최 코치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그는 이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내가 너희 운동 못 하게 할 수도 있다”고 으박지르기도 했다. 앞서 <한겨레>는 서울 송파경찰서가 해당 사건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고 **보도**한 바 있다.

최 코치의 폭력은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2021년 5월에도 새벽에 잠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역도부 학생 18~19명을 복도로 불러내 3시간가량 팔꿈치를 땅에 닿게 한 채로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게 했다. 2021년 7월엔 남자 생활관 2층 방에서 학생 한 명을 하키채로 수차례 때렸다. 폭행 때마다 사용된 하키채는 1층 사감실에 상시 구비돼 있었다.

생활관 폭행 사건을 처음 보도할 당시 조준용 한체대 교무처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며 “하키채를 썼다고 하더라도, 그저 학생들 군기를 잡는 정도였다”고 했다. 또 “학생들은 지금 (학교에) 나와서 운동도 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교 쪽 설명과 달리, 2년 동안 수차례 폭행·가혹 행위가 벌어졌고 뇌진탕으로 전치 12주 진단을 받은 중상자까지 있었다.

그간 운동부 합숙소는 ‘스포츠 폭력 온상’으로 꼽혀왔다. 이 때문에 초·중·고등학교는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합숙소 운영에 각종 제한을 받지만, 한체대는 대학이기 때문에 예외에 속한다. 더욱이 한체대 스포츠과학대학의 체육학과와 경기지도과 학생은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라 재학 중 생활관에 입관해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생활관이 사실상 운동부 합숙소나 마찬가지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현행 제도상으론 (한체대를 포함한) 대학 내 스포츠 폭력은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생활훈련이란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생활관 입소는 휴식이 아닌 합숙을 통한 성적 향상에 방점을 두고 있다. 특히 생활관에는 오로지 체육 특기생만 있는데다, 코치와 학생 혹은 선배와 후배가 훈련 뒤에도 함께 생활하다 보니 훈련장 위계질서가 생활관까지 이어진다. 일상적인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폐쇄적 구조다. 스포츠 존재 이유가 곧 ‘국위선양’이던 1976년 만들어진 법이 2022년 학생들을 여전히 통제하고 있는 셈이다.

생활관 운영 방식도 문제다. 정원 900명에 달하는 한체대 생활관은 현재 약 800명 가까운 학생이 등록돼있다. 생활관 업무는 사감 3명이 도맡아 처리하는데, 전문 사감이 아니라 대학 조교들이 맡는다. 생활 관리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생활관장-사감-학생이 모두 학내 체육학과 인맥으로 얽혀있어, 문제가 생기면 은폐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사실상 외부 감시가 이뤄질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다음 장 계속



이번 역도부 폭행 사건 때도 한체대는 국민체육진흥법이 명시한 “폭행 인지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를 어기고 학생·학부모 쪽에 고소취하를 요구해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체대는 <한겨레> 보도가 나온 뒤에야 스포츠윤리센터에 사건을 신고했다. 한체대 생활관 관장은 2021년 2월부터 얼마무개 역도부 지도교수가 맡고 있다.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관장, 가해 사감, 피해 학생 모두 역도부 소속이다. 학생들이 받는 압박감이 심할 수밖에 없다. 실제 고소에 나섰던 6명 가운데 5명은 결국 고소를 취하였다.

한체대 생활관에서 폭력 문제가 불거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5년 9월엔 카누부 학생이 술에 취해 1학년 선수를 2시간 넘게 폭행해 대한카누연맹에서 자격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다. 2018년 3월엔 수영부 4학년 3~4명이 신입생과 2학년 등 30여명에게 바닥에 머리 박기 등 상습적 가혹 행위를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2019년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한체대 육상부 1~3학년 학생들이 4학년 주장과 조교 강요로 생활관 청소·빨래를 도맡고 가혹 행위를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2020년에도 한체대 핸드볼부 신입생이 생활관에서 선배들에게 수시로 맞고, 강제로 스타킹을 신은 채 다른 방을 돌아다니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한체대 생활관 내에서 학생들 휴대전화를 걷거나 머리카락 길이까지 제한하는 등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벌어졌으며, 지도교수·조교가 해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방치하거나 오히려 직접 그런 행동을 지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름을 밝히길 원하지 않은 한 한체대 체육학과 학생은 “우리도 어엿한 성인인데 귀가나 외박조차 자유롭지 않을 정도로 압박이 심하다”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합숙 문화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정훈 중앙대 교수(체육학·체육시민연대 공동대표)는 “과거에는 메달을 따기 위해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는 곳으로 (생활관을) 규정했지만, 이젠 변화가 필요하다. 선수들에게 선택 기회를 줘야 한다. 법 개정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함은주 문화연대 집행위원은 “운동부 학생들을 운동부에 몰아넣는 게 아니라 개방을 해야 한다. 일반 학생과 함께 생활하고, 체육 특기생도 기숙사 생활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 ‘최속현 사건’ 그 후 2년... 울먹인 유족 “체육계 병폐와 여전히 싸워요”



"(최)속현이가 떠난 지 2년이 흘렀다. 속현이의 유산이 잊히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기울인 시간이었다. 사회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럼에도 (체육계는) 아직도 안 바뀐 것 같다. 문제가 커지지 않길 바라고 같은 업에 있는 사람끼리 봐주기식으로 일처리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 최속현은 2020년 6월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를 마지막 메시지로 스스로 삶을 뒤로했다. 체육계 병폐를 죽음으로 고발했다. 고교 2학년 때 태극마크를 달 만큼 유망주였던 그는 2017년부터 약 2년간 전 소속팀 감독과 선배로부터 가혹 행위를 당했다. 폭언과 폭행, 집단 따돌림 등에 지속해서 신음했다.

대한철인3종협회는 최속현이 세상을 등지고 한 달 뒤인 2020년 7월 핵심 가해자 2인을 영구 제명했다. 사법부도 철퇴를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감독에게 징역 7년, 선배 장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2월에는 국민체육진흥법(최속현법)이 개정 시행됐다. 체육계 인권 보호를 골자로 한 이 법은 가해자 제재 수위 강화와 표준계약서 도입, 스포츠윤리센터 기능 신장 등을 담아 제2의 최속현 방지에 역점을 뒀다.

고 최속현의 외삼촌 류정민(49) 씨는 스포티비뉴스와 인터뷰에서 "조금은 미흡한 구석이 있진 않은지 아쉬움이 든다. 더 노력해야 할 부문은 어디일까 머릿속이 복잡하다"고 털어놨다. 조정 국가대표 출신으로 1994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에 참가했고, 체육계의 폐쇄적인 문화를 직접 경험한 그는 현재도 체육계 병폐와 맞서 싸우고 있었다.

다음은 류정민 씨와 일문일답.

-최속현 선수가 떠난 지 2년이 됐다. 그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속현이가 가고 일 년간은 정말 바쁘게, 그리고 힘들게 지냈다. (이후 일 년은) 속현이 유산이 잊히지 않도록 나름 노력을 많이 기울인 시간이었다. 이 기간 대한체육회나 여러 체육단체에서 많은 변화를 보여 주셨다. 다만 조금은 미흡한 부문도 있지 않은가 (아쉬운) 느낌을 갖고 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폭언 폭행을 가한 감독과 주장에게 각각 징역 7년, 4년이 확정됐는데.

"속현이가 떠난 마당에 판결이 무슨 소용일까 싶다. (다만) 그럼에도 형량이 조금 약한 건 아닌지 그런 맘은 든다. 그 사람들이 속현이에게 한 행동을 고려하면 특히 그렇다."

"물론 여러 사유가 있고 재판부도 그 점을 고려해 결정하셨겠지만 유가족 입장에서, 그리고 주변서도 형량이 조금 낮은 게 아닌가 생각이 크다. 솔직히 아쉽다."

-최속현 선수의 안타까운 소식 이후 체육계 안팎으로 인권 의식과 제도 면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일련의 변화를 어떻게 보시는지.

"내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옆에서 지켜볼 때도 확실히 사회 변화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 (스포츠윤리센터 등) 단체도 많이 만들어졌다. 다만 해당 단체에서 많은 사안을 속 시원히 해결하진 못하는 것 같아 좀 아쉽다. 조사도 많이 하시고 활동도 많이 하시는 듯한데 결과물은 좀 아쉽지 않나 싶은 것이다."

-약 1년 전부터 '부산조정협회 비위 의혹'을 제기하고 계신다 들었는데.

"내가 조정 국가대표 출신이다. 부산에서 운동을 시작했고 우리 아이들도 부산에서 운동을 하고 지금도 현역으로 뛰고 있다. 부산조정협회 조직 사유화 수준이 심각하다. 선수, 지도자, 학부모 모두가 불만을 제기하는데도 부산조정협회와 대한조정협회는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넘어가려 한다. 범죄 사실이 경찰 수사로 증명됐는데도 여전히 수수방관하는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부산조정협회를 예로 들면 한 대학팀 감독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3명의 지원자 중 누가 봐도 스펙이나 지도력이 떨어지는 지원자(당시 협회 임원의 자녀)를 합격시켜 채용비리 의혹을 증폭시켰다. 한 고등부 지도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선 파벌에 의해 특정 지도자 임용을 막아 정당하게 합격했음에도 그 지원자가 임용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회계처리도 째짜미다. 협회 내 지도자가 모르는 단기 근로계약을 만들어 가짜 서명을 날인하고 (불투명한 예산을 집행해) 수당을 송금했다 다시 되돌려받아 금액 절반을 재송금하는 등 실수라고 보긴 어려운 부정회계 의혹도 있다. 이밖에도 자격증기본법 위반, 강사료 횡령 등 문제가 다양하다. (해당 의혹을 접한) 지난해 5월 부산경찰청에 고발장을 넣었고 현재 수사 중에 있다. 이렇듯 부정비리로 물러난 사람이 아직도 몇 해 전 국정농단처럼 뒤에서 부산조정협회를 좌지우지하고 조직 사유화를 꾀하고 있다."

-승부조작 정황도 포착했다 들었는데.

"관내 장학금을 받기 위해 아들의 성적 기록 원부를 뒀 적어 있다. 아내가 유심히 보더니 '성적이 좀 다르게 적혀 있는 것 같다' 하더라. 1등을 했는데 2등으로 기록돼 있다는 거다. 아이에게 물어보니 '선생님이 이렇게 타라 말씀하셨다. 그때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고 했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아들이 중등부 선수일 때다. A선수와 B(아들)가 있었는데 경기 전날 코치가 아들에게 A의 번호를 달고 타라 했다는 거다. 당시 아들은 A보다 기량이 훨씬 뛰어났다. 결국 선수 등록과 다르게 A의 번호를 달고 뒀 아들이 우승을 차지했다. 당시 아들은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올랐는데 상장을 확인하니 2등이었다. 아들이 상장이 바뀌었다고 하자 시상식이 끝난 후 상장만 (1등으로) 바꿔줬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경기 실적 기록은 A가 1등, 아들이 2등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도덕적으로, 스포츠윤리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사안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대한조정협회를 포함해 여러 단체에 민원을 넣었다. 하지만 중앙협회에선 문제를 크게 안 만들려는 듯 제 식구 감싸기식 답변이 왔다. 이 사건 공정위 절차도 제대로 되었는지 의문이 든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체육계는 여전히 바뀌지 않았음을 느끼실 것 같다.

"맞다. 아직도 안 바뀐 것 같다. 잘못이 있으면 명확히 그 잘못된 게 무엇인질 찾고 그걸 시정하는 게 체육단체가 해야 할 일일 텐데. 실제론 그렇지 않다. 그저 문제가 안 커지길 바라고 같은 업에 있는 사람끼리 봐주기식으로 일처리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시민과 정부, 체육계 등에 건네고픈 말이 있는지.

"숙현이 2주기가 지난달에 열렸다. 더운 날씨에도 와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대한철인3종협회서도 와 주셨고 친구, 동료 분들도 함께하셔서 같이 묵념해 주셨다. (함께) 뜻을 기려주신 데 이 자릴 빌어 정말 감사드린다."

"다만 1주기 때와 견줘 직접 참여해 애도해 주시는 분들 수가 조금은 줄었다. '점점 잊혀지겠지' 생각은 당연히 하고 있다.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아) 잊혀졌으면, 또 잊혀져야 한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 하나 솔직한 심경으로 사회와 운동인들, 그밖에 많은 리더분들 가슴 속에 (숙현이가) 조금은 빨리 잊혀지는 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다. 그럼에도 숙현이 사건이 남긴 메시지만은 잊지 않아 주셨으면 한다."



# 근대 5종, 여자부 세대교체 희망 밝혔다... 세계선수권 단체전 銀

여자 근대5종 국가대표팀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사상 최초로 단체전 은메달을 목에 걸며 톱 클래스 기량을 인증 받았다.

김선우(경기도청), 성승민(대구광역시청), 장하은(경기체고) 등 여자 근대5종 대표팀 3명은 31일(한국시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열린 2022 국제근대5종연맹(UIPM)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단체전에서 펜싱, 수영, 승마 및 레이저 런(육상+사격) 성적 합계에서 3987점을 기록, 영국(4161점)에 이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대표팀이 세계선수권 단체전에서 메달을 획득한 건 한국 근대5종 역사상 최초다. 특히나 한국 선수단에 고등학생 장하은과 올해 대구체고를 졸업한 성승민이 포함돼 향후 기록 및 순위 향상 가능성이 매우 높다.

출발은 좋지 않았다. 국제대회 출전 경험이 부족한 성승민과 장하은이 펜싱 랭킹라운드에서 다소 저조한 성적을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수영, 승마, 레이저 런을 거치며 가파른 순위 향상을 이뤄내 내로라하는 강팀들을 줄줄이 제친 끝에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용태라는 걸출한 재목이 등장한 남자부와 달리 여자부는 세대교체에 어려움을 겪어 우려의 시선을 받아 왔다. 다행히 이번 대회를 앞두고 성승민과 장하은이라는 신예가 주목할 만한 기량 향상을 이뤄내 기대감을 높였다. 기존 투톱인 김세희(BNK저축은행), 김선우(경기도청)와 더불어 선의의 경쟁 체제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최은종 근대5종 대표팀 감독은 “성승민과 장하은은 국가대표로 발탁돼 승마를 시작한 지 몇 개월 만에 세계선수권 결승전에 이름을 올린 데 이어 단체전 메달까지 목에 걸었다”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는 두 선수의 향후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남자 개인전에서는 기대했던 금메달이 나오지 않았다. 결승에 진출한 전용태(광주광역시청)와 정진화(LH)가 나란히 17위와 14위로 포디움에 오르지 못한 채 대회를 마감했다.

전용태와 김선우는 이번 대회 마지막 종목인 혼성 계주에 출전해 메달 획득에 도전할 예정이다.

# 학교 운동선수들, 혹서기 몰린 전국대회에 '방학은 그림의 떡'

연일 폭염특보가 전국을 뒤덮고 있는 가운데, 혹서기에 몰려있는 전국대회 출전으로 스포츠 꿈나무들이 운동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체육계는 전국 단위 대회 성적으로 진학을 결정짓는 입시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28일 경기도 내 학교운동부 지도자들과 학부모들에 따르면 학생 운동선수들이 잇따른 각종 전국대회 출전으로 인해 혹사를 당하고 있다. 이는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에 적용되지 않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전국대회가 몰려있어 진로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대회 출전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3년간 코로나19 확산 방지 여파로 국내·외 체육대회가 연이어 취소되며 대회 성적이 부족한 학생 선수들이 많아졌고,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혁신위원회서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제정한 주중 대회·훈련 참가 허용 일수(기존 초등학교 10일, 중학교 15일, 고등학교 30일)가 올해 초등학교 0일, 중학교 10일, 고등학교 20일까지 대폭 감소되면서 압박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종목 단체별 대회 일정을 살펴보면 육상의 경우 교보생명컵(7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7월), 중·고회장배(7월), 추계 중·고대회(8월) 등 전국 대회가 1~2주 간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테니스 역시 대통령기(7월), 대한테니스협회장배(7월), 소강배(7월), 학생선수권대회(8월) 등이 잇따라 열리고 있다. 체중관리가 수반되는 레슬링의 경우도 대통령기(7월)에 이어 문체부장관기(8월)가 예정돼 있어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외에도 사격, 볼링 등 실내 종목도 방학 시즌 시작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대회가 일제히 열리는 것을 신호탄으로 각종 대회가 줄을 잇고 있다.

한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여름철 몰려있는 전국대회 일정을 모두 소화하기 빠듯하다. 지도자 입장에서 선수들의 체력을 안배해 대회를 조절해 출전시키고 싶으나 학기 중에는 출석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방학 기간 최대한 많은 경기를 소화해야 한다”며 “또한 지난 3년간 각종 대회들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대회 성적이 아쉬운 선수들이 예전보다 많아져 무리인줄 알면서도 대회 출전을 강행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학부모 최선주씨(42)는 “대회 준비에 아들이 체력적으로 버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특히 여름에는 체중조절이 어려워 더욱 힘들어한다”며 “선수로서 입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국대회 성적을 포기할 수 없는 노릇이다. 학습권 보장도 중요하지만 선수들의 안전을 고려한 입시제도나 교육 방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주간 스포츠 소식

박지성 "고교 축구선수가 모든 수업을 들어야 할까"

<https://www.fnnews.com/news/202207312322191694>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체육 '메가 스포츠 타운' 박차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147394?ref=naver>

홍천군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개관...수영장·수중치료실 구축

<https://www.yna.co.kr/view/AKR20220801129800062?input=1195m>

대전체육회, 학생선수 재활훈련 집중 지원 나선다

<http://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2572>

"초중고 아이들의 체육시간 지키기위해" 대한체육회 '학교체육포럼' 뜨거웠던 현장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2208020100006980000232&servicedate=20220801>

여자 세팍타크로, 세계선수권 금1·동1개 획득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20801010000101>

경기도체육회, '2022년도 런데이투어' 사업 시행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20731580167>

[교육소식]부산 체육실기수업 역량강화 직무연수 등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729\\_0001960867&cID=10811&pID=10800](https://newsis.com/view/?id=NISX20220729_0001960867&cID=10811&pID=10800)

체육관에 올려퍼진 팬들의 함성, 한국 男 배구 인기 확인 [오!센 잠실]

<http://osen.mt.co.kr/article/G1111908711>

# 체육시민연대

##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